

최첨단 방재시설로 고객의 안전 최우선

한국의 나폴리,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이번 탐방은 한려수도 내에 있는 국내 최초의 육·해상 종합 휴양지인 경남 통영의 ‘금호 충무마리나 리조트’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미륵도 관광특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요트나 유람선을 타고 인근의 거제도과 비진도, 옥지도, 연화도 등의 섬을 돌아볼 수 있으며, 주변 바닷가와 추도, 연대도, 두미도 등지에서는 바다낚시와 사냥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주변에 세병관, 충렬사, 충무공유적지, 한산도, 거제도 등 관광지가 많아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글 | 오정규 협회 경영기획부 과장

차별화된 서비스로 색다른 경험을 ● ‘금호 충무마리나 리조트’는 금호산업(주)의 레저부문 5개 사업장(충무, 설악, 화순, 제주, 패밀리랜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콘도, 스포츠센터, 요트클럽하우스의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유일의 민간 운영 요트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용 항구에서 요트를 타고 한려수도를 돌 수 있으며 제트스키,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여객선 모양의 콘도는 지상 15층/지하 1층에 총 객실 272실 규모로 한식당, 팝 레스토랑, 사우나, 슈퍼마켓,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여객선 모양의 요트클럽하우스와 잠수함 모양의 스포츠센터를 보고 있으니 바다향취가 물

씬 더 느껴진다. 객실에서 바다를 보니 출렁이는 물결에 마치 배안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전망이 뛰어나다. 어느 객실에서나 남해바다와 통영항을 감상할 수가 있는 것도 이곳의 큰 장점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즐거운 일터 ● ‘금호 충무마리나 리조트’를 책임지고 있는 김무경



김무경 본부장

리나 리조트’를 책임지고 있는 김무경 본부장의 첫 인상은 시골의 동네형 같은 느낌이다. 소탈한 성격의 김 본부장은 늘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고 한다. 올해 1월 제주 본부장에서 이곳 충무로 발령받은 후 두 아이의 학교문제로 혼자 생활하려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좌)충무마리나 직원 (우)소방훈련

한다”는 딸 소희와, “함께 살지 않으면 비행 청소년이 되겠다”는 아들 태훈이의 협박(?) 때문에 이사를 했다며 밝게 웃는 그의 표정이 왠지 애교스럽다. 가족에 관한 남다른 애정과 철학을 갖고 있는 그는 평소 직원들에게도 가족같이 허물없이 대한다. 이런 그의 행동에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살갑게 굴며 친근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리조트 산업은 고객서비스가 생명입니다. 직접 고객을 접하는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 스스로가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같은 직장 분위기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김 본부장은 사내 동호회를 적극 지원하고, 1년에 1~2번은 정기적인 야유회나 체육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최상의 방재시설 갖춰 ●

금호 충무마리나 리조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재양 시설팀장은 최고참이자 이 곳의 산 증인이다. 개장할 때부터 근



전재양 팀장

무해 시설물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하지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때 바닷물이 넘쳐 건물 지하가 잠겼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고 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두 달여 동안 휴업하고 전면 개보수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그날 이후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 방지대책이 시설팀의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태풍의 발생과 이동 등 전 과정을 최첨단 위성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

하고 있다”며 “유사시 지하로 통하는 모든 입구를 완전히 밀폐하므로 과거와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방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라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시설팀의 전 직원이 매일 콘도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고 방재설비를 점검하는 등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협회가 실시하는 위험관리에 대해 ●

전재양 시설팀장은 “개장 이래 매년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및 시설보완이 화재 등 재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방법 개정으로 관련 법규정이 바뀔 때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면, 어김없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콘도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피난과 초기소화가 중요한 만큼 협회의 위험관리도 점검대상의 특성에 맞게 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회 부설 방재시험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방재실무교육 과정에 휴양 시설 근무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체의 연수 및 세미나, 각종 연회 행사에 적합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행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금호 충무마리나 리조트’가 한국의 나폴리 충무에서 세계적인 휴양명소로 도약하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